

이야기지도안

교육목표

제목 금강산 구경을 간 수달

나이 유아 (3~5세)

주제 • **목표** : 호랑이를 물리친 수달의 지혜로움을 배운다.
• **주제** : 지혜

핵심어 한라산, 금강산, 수달, 토끼, 호랑이, 지혜, 여행, 국토대장정

한국문화 • **목표** : 대한민국의 한라산과 금강산에 대해 알아보고 관심을 가진다.
• **요소** : 한라산, 금강산, 국토대장정

한국어 • **목표** :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고, 의태어와 의성어 표현의 재미를 느낀다.
• **단어** : 두루두루, 찌렁찌렁
• **표현** : 두루두루 구경했어요. 찌렁찌렁 울렸어요.





인사 나누기

배꼽손! 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000,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예요.



제목 알리기

오늘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제목 나와라 똑딱! '금강산 구경을 간 수달' 이야기예요.

여러분, '금강산'에 대해 들어 본 적 있나요? 그래요. 강원도에 있는 금강산은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해요. 북한에 있어서 지금은 갈 수 없지만 할머니가 꼭 가보고 싶은 산이에요. 언젠가는 여러분도 금강산을 구경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수달이 우리보다 먼저 경치 좋은 금강산을 구경하러 갔대요. 우리 함께 이야기를 들어 볼까요?



이야기 시작 노래 부르기

'금강산 구경을 간 수달' 이야기 속으로 출발!

♪ 하나 둘 셋 넷! 이야기 시작!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 보아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준비 됐나요? 하나 둘 셋 넷! 출발합니다. 뽕뽕! ♪



이야기 들려주기

옛날 제주도 한라산 계곡에 수달이 살았어요. 그런데 7년 동안이나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지요. 할 수 없이 수달은 제주도를 떠나 강원도 금강산으로 오게 되었어요.

“와, 여기는 먹을 것도 많고 경치도 너무 좋구나.”

수달은 배불리 먹고, 이 봉우리 저 봉우리 올라가서 두루두루 구경도 했지요.

하루는 어떤 봉우리에 올라가서 산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산 밑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가재를 잡아먹으면서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본 수달은 덜컥 겁이 났지요.

‘큰일났네! 호랑이가 여기까지 올라오면 분명 나를 잡아먹을 텐데, 어떡하면 좋을까?’

도망쳐도 잡아먹힐 게 뻔하니까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수달은 꾀를 냈어요. 산이 찌렁찌렁 울리도록 큰 소리를 질렀지요.

“호랑아!”



이야기 들려주기

가재를 잡고 있던 호랑이는 깜짝 놀라 대답했어요.

“네, 누구신지요?”

그러자 수달이 다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잘 왔다. 이 금강산에 있는 호랑이는 내가 다 잡아먹어서 한 마리도 없는 줄 알았다. 그런데 네가 남아 있었구나. 얼른 이리로 올라오너라. 내가 마저 잡아먹어야겠다.”

이 소리를 들은 호랑이는 겁에 질려 냅다 도망쳤어요.

한참을 도망가다 토끼를 만났어요.

“어? 호랑이님! 왜 그렇게 달아나세요?”

“토끼야, 큰일 났다! 저 산봉우리에서 어떤 놈이 나를 잡아먹겠다고 해서 이렇게 도망가는 중이란다.”

호랑이가 무서워 벌벌 떨며 말하자, 토끼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야기 들려주기

“하하하! 호랑이님, 그게 아니에요. 제주도에 살던 수달이 먹을 것을 찾으러 여기로 왔대요. 그 수달이 어떻게 호랑이님을 잡아먹어요?”

그래도 호랑이는 토끼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 말 마라. 설마 수달이 감히 나를 잡아먹겠다고 큰소리를 치겠니? 분명 무서운 짐승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다.”

호랑이는 다시 달아나려고 했지요.

“호랑이님은 산중의 왕이시잖아요. 왜 이렇게 겁이 많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 꼬리랑 호랑이님 꼬리랑 묶고 같이 가요.”

토끼는 호랑이를 살살 달랬어요.

“알았다. 그럼 네가 앞장서서 가자꾸나.”

서로 꼬리를 묶은 호랑이는 마지못해 토끼를 따라서 수달이 있는 데까지 올라갔지요.



이야기 들려주기

한편, 수달은 호랑이를 쫓아 버리고 ‘이제는 살았구나.’ 하고 마음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토끼와 호랑이가 봉우리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를 어찌나, 이번에는 꼼짝없이 죽겠구나.’

곰곰이 생각하던 수달은 또 한 번 꾀를 내어, 큰 소리로 말했어요.

“토끼야! 고맙다. 네 할아버지 때는 죽은 호랑이 가죽 천 장을 바쳤지. 그런데 이번에는 살아있는 호랑이를 바치려고 네 꼬리에 묶어 데려왔구나. 어서 이리 오너라!”

이 소리를 들은 호랑이는 무서워 냅다 돌아서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란 토끼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호랑이님, 호랑이님! 잠깐만, 잠깐만 멈추세요!”

호랑이는 화를 내며 소리쳤지요.

“이 나쁜 토끼야! 네가 나를 속여서 저놈에게 바치려고 했구나.”

말을 마친 호랑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날쌔게 도망쳤어요.



이야기 들려주기

그 바람에 토끼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호랑이가 너무 빨리 도망쳐서 토끼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만 토끼 꼬리가 '뚝' 떨어져 나가고 말았대요. 그때부터 토끼 꼬리는 짧아지고, 호랑이 꼬리는 토끼 꼬리가 붙어 길어졌답니다.



한국문화, 한국어 소개하기

여러분,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잘 들었나요?

수달은 제주도를 떠나 금강산으로 가서 좋은 경치를 두루두루 구경했어요. 하지만 무서운 호랑이를 보았죠. 그때 수달은 꾀를 내어 호랑이를 잡아먹겠다고 산이 찌렁찌렁 울리도록 큰 소리를 질렀지요. ‘두루두루’는 여기저기 빠짐없이 골고루라는 뜻이고, ‘찌렁찌렁’은 목소리가 크게 울리는 소리 또는 모양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산에 가 본 적이 있나요? 수달은 어느 산에 갔나요?

네, 수달은 한라산에도 가고, 금강산에도 갔었죠. 한라산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산으로 제주도에 있어요. 하지만 7년 동안 가뭄이 들자, 먹을 것이 없어 한라산에서 살 수 없었대요.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금강산으로 갔어요. 일만 이천 봉으로 유명한 금강산은 경치가 정말 좋아서 수달은 이 봉우리 저 봉우리에 올라가서 신나게 구경했대요. 여러분도 한라산과 금강산의 아름다운 경치가 궁금하지요?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아요!



이야기 정리하기

여러분, 할머니와 ‘금강산 구경을 간 수달’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금강산을 구경하던 수달은 호랑이를 보고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배짱 넘치는 행동과 재치 있는 말솜씨로 호랑이를 도망가게 했지요. 무서워하는 호랑이를 달래기 위해 호랑이와 꼬리를 묶었던 토끼는, 호랑이가 겁에 질려 달아나는 바람에 꼬리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토끼 꼬리는 더욱 짧아지고, 호랑이 꼬리는 지금처럼 길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어요.



이야기 마치는 노래 부르기

그럼, 이야기 마치는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할머니랑 인사합시다.
이야기 마치는 노래 시작!

♪ 하나 둘 셋 넷! 잘 들었어요.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뽕뽕!♪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다음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또 만나요. 안녕!